

'꿈의 스피드 축제' 영암 F1 10월 4일 개막

'찰나의 승부' 드라이버들의 각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4일~6일) 개막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출전 선수들이 잇따라 각오를 밝혔다.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 젠슨 버튼(영국·맥라렌) 등 주요 드라이버들은 29일 F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코리아 그랑프리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버튼이다. 지난 2009년 F1 종합 우승을 차지한 버튼은 "F1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한국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대회에서 4위에 올랐으나 한국에서 열린 첫 대회였던 2010년에 12위에 그쳤고 지난해는 중도 기권하는 등 한국 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다.

버튼은 "지난해 첫 번째 바퀴 세 번째 코너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렸다."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한국 대회를 앞두고 이번만큼은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가 강하다"고 다짐했다.

한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페텔은 "한국 대회 경기장은 설계가 다소 독특하다"며 "긴 직선 주로가 초반에 놓여 있고 후반으로 가면 코너를 돌아야 하는 구간도 나

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곡선 주로에서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직선 주로나 급회전 구간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페텔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8월 벨기에 대회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싱가포르 대회에 이어 시즌 4연승이 되고, 한국 대회에서도 3년 연속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페텔의 팀 동료 마크 웨버(호주)는 한국 대회의 속속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한국 대회는 모든 선수가 같은 호텔에서 지낸다"며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모습이 재미있다"고 평했다.

외국 대회의 경우 선수들이 다양한 호텔에 머물 수 있지만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있는 영암의 경우 인근에 선수들이 지낼만한 숙소가 사실상 하나뿐이기 때문에 같은 호텔을 쓰게 된다.

지난해 대회에서 5위에 오른 라이코넨은 "2012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초반 서킷 적응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몇 바퀴를 돌면서 편안한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머신 상태가 괜찮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선수들은 이번 주초부터 입국해 한국 대회 우승 트로피를 향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 3년 연속 우승 노리는 페텔

영암경기장 설계 독특

직선주로·급회전 구간서 승부낼 것



■ 한국대회 번번히 실패한 버튼

F1 경기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곳

이번 만큼은 좋은 성적 내겠다



■ 지난해 5위 입상한 라이코넨

몇 바퀴 돌면 편안한 느낌

머신상태 괜찮다면 좋은 성적 자신



사이클 축제 '투르 드 코리아'



국내 최대 규모의 동호인 도로사이클 축제인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3 스페셜 대회 참가자들이 강진 병영면 구간을 달리고 있다. 88 서울올림픽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사이클연맹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등록선수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5~28일 구례~여수~강진~영암 등 총 400km 구간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결과 개인 종합 1위는 문성욱(32), 팀 종합 1위는 팀스카트-LSRI가 각각 차지했다. /강진=남철화기자 chou@kwangju.co.kr

광주일보사 주최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4R

화순에슬레틱스 '운도 실력' 호남리그 2연패 도전

장성우리필드에 추첨승 '결승행'

천왕·호남리그 우승에 도전할 두 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4라운드가 지난 28일 서석초 야구장과 무등중 야구장에서 열렸다.

천왕리그와 호남리그의 준결승전이 치러지면서 결승전 윤곽이 드러났다. 천왕리그의 팔도참오리와 호남리그의 화순에슬레틱스 두 '디펜딩 챔피언'의 우승 도전은 계속된다.

천왕리그 결승은 팔도참오리와 자연환경의 대결로 압축됐다. 지난 대회 우승팀 팔도참오리는 유한 김벌리킹과의 준결승에서 4-3으로 승리를 거뒀다. 유한김벌리킹의 최영필은 2회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자연환경은 1회부터 7점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금호 허리케인을 12-4로 제압했다. 금호 허리케인은 3-7로 뒤진 6회 주기환의 홈런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화순에슬레틱스는 행운의 승리로 호남리그 2연패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화순에슬레틱스는 장성우리필드와의 경기에서

2회까지 5점을 내주며 고전했지만 착실하게 점수를 만들며 승부를 8-8 원점으로 돌렸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추첨을 통해 화순에슬레틱스가 결승 티켓을 가져갔다. 남은 티켓 한장은 버팔로스의 차지다. 버팔로스는 터틀스와 경기에서 6-4로 이기며 호남리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자연·인왕리그의 8강전도 진행됐다.

지왕리그에서는 NH 디스커스, 허버베이스볼,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NH 디스커스는 엑터스를 상대로 8-0, 5회 콜드스를 장식했다. 허버베이스볼은 헬리우스와의 경기에서 1회 선취점을 내렸지만 5-2로 역전승을 거뒀다.

3연패에 도전했던 세한재규어스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세한재규어스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경기에서 19점을 합작하는 난타전을 벌였지만 8-11로 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인왕리그에서는 페가수스가 준결승에 합류했다. 페가수스는 다이내믹스의 타선을 완벽 봉쇄하며 6-0의 영봉승을 거뒀다. 페가수스의 김영환과 임창일은 1회 나란히 홈런을 날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4주차 경기결과

◆천왕리그 준결승전(서석초야구장)

팔도참오리 1102000-4

유한김벌리킹 0120000-3

△승리투수: 고현무

△홈런: 최영필(2회)·유한 김벌리킹

자연환경 7000401-12

금호허리케인 0030010-4

△승리투수: 김영권

△홈런: 주기환(6회)·1회·금호허리케인

◆호남리그 준결승전(서석초야구장)

장성우리필드 142100-8

화순에슬레틱스 023012-8 (추첨승)

버팔로스 0021300-6

터틀스 202000-4

△승리투수: 정현재

◆지왕리그 8강전 (무등중 야구장)

엑터스 00000x-0

NH디스커스 02132x-8 (5회 콜드승)

△승리투수: 김태호

헬리우스 1000010-2

허버베이스볼 012110x-5

△승리투수: 유기룡

무등산생태요양병원 30035-11

세한재규어스 10205-8

△승리투수: 임현

◆인왕리그 8강전 (무등중 야구장)

다이내믹스 0000000-0

페가수스 22020x-6

△승리투수: 김희욱

△홈런: 김영환(1회)·1점, 임창일(1회)·1점·이상 페가수스

2시간3분23초... 마라톤 세계 신기록

케냐 김상 종전기록 15초 단축

케냐의 철각 윌슨 김상 키프로타치(31)가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을 2년 만에 갈아치웠다.

김상은 29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3 베를린마라톤 42.195km 풀코스 레이스에서 2시간3분23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이로써 김상은 2년 전 이 대회에서 패트릭 마카우(케냐)가 세운 2시간3분38초 종전 세계기록을 15초 앞당긴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2시간 9분 37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김상은 201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라톤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2시간 3분 42초)을 19초 단축하고 마라톤 지존으로 우뚝



섰다. 2위는 2시간 4분 05초를 찍은 엘리우드 김초게(케냐), 3위는 2시간 6분 26초를 기록한 제프리 김상(케냐)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KIA '무등야구장 시대' 마감 이벤트

4일 넥센전서

10월 4일 '무등야구장 시대'를 마감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다음달 4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최종전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최종전 행사는 '무등야구장, 그 역사의 현장에 타이거즈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32년의 무등 시대를 마감하는 아쉬움과 함께 2014시즌부터 사용할 신축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담는다.

선수단은 팜과 투혼, 감동이 담긴 무등야구장 시대를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유니폼에 '기억할게! 우리의 무등'이라는 패치를 부착한다.

경기전 선수 사인회도 열리며, 경기가 끝난 뒤 팬들에게 그라운드를 개방해 무등야구장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전을 맞아 '1+1' 티켓 프로모션 행사도 연다. 넥센과의 최종전 티켓을 별도로 제작하고 이를 구매하는 팬들에게 구매할 티켓과 동일한 티켓 1매를 보너스로 증정한다.

또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던 1-3투를 자유석으로 운영해 1-3투와 외야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정석과 타자석은 제외된다. 이날 시구는 타이거즈 원년 팬인 박질선씨(77)가 맡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록의 사나이 추신수 300출루 달성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한 시즌 '300차례 출루'라는 꿈의 기록을 달성했다.

추신수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벌어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안타, 몸에 맞은 볼, 볼넷으로 세 타석 연속 1루를 밟았다.

전날까지 297 출루를 기록하던 추신수는 3개를 보태 마침내 300번째 출루라는 개인 첫 이정표를 세웠다. 출루 기록은 안타와 볼넷, 몸에 맞은 볼로 누상에 나간 횟수를 모두 더해 만든 기록이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안타 162개(홈런 21개), 볼넷 112개, 몸에 맞은 볼 26개로 300 출루를 채웠다. 이날까지 팀이 치른 161경 중 153경기에서 출전한 추신수가 경기당 평균 2회에 가까운 1.96회씩 출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ML)에서 300 출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팀 동료 조이 보토,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이어 추신수가 3번째다.

단일 시즌에 한 팀에서 300출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두 명 나오기는 1999년 데릭 지터·버니 윌리엄스(이상 뉴욕 양키스) 이후 추신수·보토가 14년 만이다. 추신수는 20홈런·20도루·100득점·100볼넷 이상을 수확한 선수로는 역대 12번째로 300 출루도 달성해 빛나는 이력 하나를 더 추가했다. /연합뉴스